

메타분석을 활용한 정서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부모요인을 중심으로

김미정* · 이경은** · 염동문***

초 록

해마다 아동학대 신고율과 재신고율은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 발생률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 보다 아동학대 발생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보다 근원적·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정서학대는 후유증이 쉽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향력이 더 지속적이고 치명적 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아동의 정서학대 발생과 부모요인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검색을 통하여 최종 19개의 연구논문이 메타분석에 이용되었으며, 각각의 연구에서 도출된 효과크기(effect size, Fisher's transformed correlation)는 각 연구의 역분산 값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후, 가중 평균 효과크기(weighted mean effect size)로 계산되었다. 정서학대와 부모요인의 전체 효과크기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요인의 하위변인인 모음주, 모연령, 부음주, 가정폭력, 부모의 스트레스에서도 정서학대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효과크기의 이질성 정도가 모든 변인에서 중간크기 이상으로 나타나서 효과크기의 변량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특성변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물의 출판편향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서학대 발생과 부모요인에 대한 논의 및 연구의 제한점 제시하였다.

주제어 : 정서학대, 부모요인, 아동보호, 메타분석, 효과크기

* 가장종합사회복지관, 제1저자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신저자, keung@knu.ac.kr

***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동저자

I. 서 론

우리나라 아동의 25.3%가 학대를 경험하는데(보건복지부, 2011),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체 아동 수 중 학대받는 아동은 45만 여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는 한해 2천여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대받는 아동에 비해 사회적 개입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가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인력의 확충 및 양성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학대 신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학대 재발생율도 증가하고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특히 아동학대 유형 중 정서학대는 아동의 정서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서,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외형적인 손상이 드러나지 않아 더욱 심각하다. 2011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 발생이 3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협박을 가하고 언어적 공격을 일삼으며 모욕감,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감금하는 등,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정서학대는 다른 학대와 중복하여 발생되어 그 후유증이 더욱 심각할 수 있으나 정서학대로 인한 상해나 후유증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정서학대를 발견할 수 있다. 정서학대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아동의 현재 생활에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 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된다. 학대로 인해 아동은 감정표현이 어렵고 무질서한 내면 세계로 인해 왜곡되고 부정적인 감정교류를 하게 되어 타인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미영, 2004). 정서학대가 아동에게 단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없으나 정서학대로 인한 아동의 불안은 대인관계나 사회적응장애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복희, 2007). 정서학대는 아동의 우울과 절망, 철회, 자신의 감정통제, 위축 등으로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타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이복희, 2007; 전영실, 2000; Harvey & Delfabbro, 2004). 뿐만 아니라 정서학대를 받지 않은 아동에 비해 공격성과 비행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형사정책연구원, 2000). 정서학대는 가족관계에서 채워져야 하는 정서적 욕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상처는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박양리, 현명호, 2012). 따라서 정서학대는 지금까지 신체학대나 성학대보다 더 장기적으로 아동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Hart & Brassard, 1987), 나아가 사회공포증과 관련이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Brandon, Iwona & Mark, 2007). 정서학대는 그 영향력이 지속적이어서 아동에게 더 치명적이나 정서학대에 대한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학대 가해자가 주로 부모인 점을 고려해보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데 있어 가족과 부모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과 성장환경은 아동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 관련을 맺는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 아동기의 피학대경험,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성격이나 기질 등과 같은 가해자의 특성이나 아동의 언어발달이나 장애, 문제행동 등과 같이 부모나 아동의 특성이 학대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로 살펴보고 있다(김혜영, 석말숙, 2003). 최근 외국의 연구결과에서도 인구학적변인, 가족관계성, 부모의 특성, 아동의 특성, 지역사회를 비롯한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변인을 아동학대와 관련변인으로 파악하고 있어(Brown, Cohen, Johnson & Salzinger, 1998; Djeddah, Facchin, Ranzato & Romer 2000) 부모요인에 대해 재조명하고 있다.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대의 위협에 보다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의 발생요인을 살펴 아동학대 발생요인과의 차이에 대해 고찰하고 정서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특징적인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또한 정서학대 가능성이 높은 가정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서학대를 유발하는 부모요인의 영향을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과학적으로 종합하고 효과성을 검증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학대를 유발하는 부모요인의 영향에 대해 메타분석을 적용하여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정서학대에 대한 부모요인의 전체 효과크기는 얼마인가?

둘째, 범주형 변인(아동의 성별, 출판여부, 조사대상 지역)에 따른 정서학대와 부모요인의 효과크기는 얼마인가?

셋째, 연속형 변인(표본수, 발간연도)에 따른 정서학대와 부모요인의 효과크기는 얼마인가?

II. 선행연구

지금까지 정서학대는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미친 영향과 아동기의 정서학대 경험이 성인에게 까지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김혜인, 2007; 이영웅, 2011; 신현주, 2010). 그러나 정서학대는 관련연구가 거의 부재하고, 아동학대 하위 변인으로 일부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학대를 포함한 아동학대 발생변인을 고찰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한 연구에서 두 변인과의 관련성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발생에서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미, 2007). 이와는 반대로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모두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을 제시하였다(강대선, 2001; 김현정, 2002). 이를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학대발생율이 높으나(이선화, 2006), 모의 학력은 학대 발생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보열, 2004; 이선화, 2006).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의 학력과 모의 학력은 정서학대 발생과는 관련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복희, 2007; 조옥자, 현온강, 2005).

부와 모의 연령과 아동학대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가 어리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술이 부족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인내심이 모자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Miller, Fox & Garcia-Beckwith, 1999). 이에 반해 정서학대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정서학대 발생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부연령은 정서학대 발생과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는데 비교적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현정, 2002; 서보열, 2004; 하은경, 박천만, 2002). 이러한 결과는 부가 모에 비해 아동과 같이 하는 시간이 비교적 적고, 자녀양육에 주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모의 취업여부는 아동학대 발생과 재발생에서 영향력 있는 변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정서학대와 모취업 여부와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현기(2005)는 모취업 여부에서 모만 취업하거나 모와 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 정서학대 발생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선행연구도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미희, 2000; 유영선, 2012).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하여 부모의 음주문제가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하였다(여진주,

2008; 이원표, 2001). 노충래(2002)는 아동학대와 가해자의 음주가 관련되며, 가해자 중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약 18%임을 밝혔다. 음주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자녀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와 관련된다(Ammernan, Kolko, Kinsci, Blackson & Dawes, 1999). 지주예(2002)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학대가해자가 알코올중독인 경우 극심한 수준의 학대로 이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의 음주와 정서학대 발생이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유영선, 2012; 이현기, 2005). 이와는 달리 김현정(2002)은 부모의 음주가 정서학대 발생에 영향력이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의 경제수준은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된다. 빈곤과 같은 경제적 위기는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진주, 2008; 전영실, 2003).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상태는 아동학대 재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세원, 2008; 전영실, 2003). 이와 같이 가족의 수입이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의 빈곤이 가족내 스트레스를 높이고 이는 다시 가족갈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보호에 필요한 시간과 지원에 대한 여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다(노충래, 2002; 전영실, 2003; 한인영, 김지숙, 유서구, 2007), 그러나 김정미(2009)는 가구의 소득이 낮은 경우는 정서학대와 관련성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부모가 만성적인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을 앓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Wolfe & Wekerle, 1993). 부모의 스트레스는 아동에게 관심을 줄 여유와 능력이 없어지며(Danziger & Danziger, 1993),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사소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 자녀에게 짜증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부모의 스트레스는 아동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장화정, 강미경, 신소현, 2002). 특히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을 높게 지각하며 아동의 행동을 자주 통제하고 강압적이며 처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며(Abidin, 1992), 처벌적인 양육태도의 최고 수준인 아동학대를 예측하는데 주요한 변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지연, 2001). 부모의 스트레스가 정서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주장(김순희, 2002)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정서학대는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김미희, 2000)이 공존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바른 자녀성장의 도구로 체벌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대로 인식하지 않으며(김세원, 이봉주, 2005), 오히려 훈육과 체벌과 같은 양육태도가 바람

직한 것임을 주장하기도 한다(박행진, 2000).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학대 유발에 영향력있는 변수임을 강조한다(Miller et al., 1999), 특히 모의 양육태도와 부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일수록 정서학대가 심각하며(박정숙, 2009), 다수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학대 발생이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백경숙, 2011).

가정폭력은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아동학대발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가 학대당할 비율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원표, 2001; Fantuzzo, Boruch, Beriama, Atkins & Marcus, 1997). 즉 부부간에 불화와 갈등이 높으며, 폭력으로 부부간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더 많이 발생한다(Tajima, 2000). 가정폭력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정서학대와도 관련성이 높다(노충래, 2002; 오승환, 2001; 장화정, 강미경, 신소현, 2000).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정서학대 발생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하는 과정에서 학위논문과 학술지(등재후보지 이상) 논문을 포함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의 출판년도는 제한하지 않았다. 이는 정서학대 발생요인에 관련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학위논문은 리스포유(www.Riss4u.kr)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기 위하여 e-article(학술교육원/www.earticle.net), KISS(한국학술정보/kiss.kstudy.com), DBPIA(누리미디어/www.dbpia.co.kr), NewNonmun(학지사/newnonmun.com)에서 논문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또한 충분한 자료확보를 위하여 수집된 논문의 참고문헌을 검토하여 자료에 포함하였다. 학위논문 중 인터넷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는 다시 해당학교로 논문을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2. 자료선정

본 연구의 자료선정을 위해 정서학대 발생요인에 대해 각 변수별 주제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주제어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정서학대 발생요인과 관련하여 ‘학대’, ‘아동학대’, ‘정서학대’, ‘가정폭력’으로 검색하였다. ‘요인’, ‘발생’, ‘유발’, ‘원인’을 검색어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두 변수간에 관련성 있는 논문 301편을 우선 선정하였다. 이후 국문초록으로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이 본 아동학대와 발생요인과 관련한 논문 57편을 선정하였다. 우선 선정된 57편의 논문의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중 하위변인인 정서학대에 해당하는 논문을 다시 분류하였고, 동시에 발생요인을 정리한 결과 32편으로 정리되었다. 이후 효과크기에 필요한 통계정보와 하위변인이 부적절한 논문, 하위변인 중 논문 편수의 부족으로 제외된 논문을 제외하여 총 19편의 논문을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각 논문별 변인의 용어는 동일하나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서로 다른 용어를 쓰지만 동일 의미인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가족형태가 핵가족과 대가족을 구분하기도 하고 가족형태가 한부모와 아닌 경우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입, 가정수입, 경제력, 소득, 가정형편, 경제적 특성이 연구대상의 소득수준 정도를 연속변수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으로 재정의하였다. 자료선정과정은 연구물이 누락되지 않고, 하위변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자간 교차검증을 두 차례 이상 실시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1) 자료 코딩

최종 분석대상 논문들의 연구특성을 정리하기 위한 코딩매뉴얼은 연구일련번호, 연구자, 발표연도, 연구물종류, 조사대상자유형, 집단별 표본 수, 자료수집방법, 학대경험유형, 자료 분석방법, 통계치, p값, 학대경험과 부모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효과크기(r , t , F 값), 성별, 학년 등 총 32개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코딩매뉴얼을 개발한 후, 공동연구원이 함께 각 연구물에 대해 최소한 두 번 이상의 점검하였다. 자료에 대한 불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된 자료는 충분한 합의를 거쳐 일치된 합의점을 도출

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교차점검 과정을 거치면서 자료를 코딩하였다. 수집한 자료들과 별도로 산출한 효과크기들은 CMA(Comprehensive Meta Analysis) 2.0을 사용하여 필요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자료분석

(1) 효과크기 산출 및 해석

효과크기는 어떤 변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원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는지를 표준편차 척도(Z)로 환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효과크기는 아동의 정서학대경험과 부모요인간 상관 정도를 나타낸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각 연구물에 제시된 정서학대와 부모요인의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계산된 효과크기(effect size, Fisher's transformed correlation, Z_r)는 각 연구의 역분산값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후, 가중 평균 효과크기(weighted mean effect size)로 산출하였다¹⁾. t 와 F 값으로 제시된 자료는 상관계수(r 값)로 변화하여 표준화된 효과크기(Fisher's, Z_r)를 산출하였으며, 효과크기 산출공식은 아래와 같다.

$$Z_r = 0.5 \ln \frac{1+r}{1-r}$$

또한, 각 연구에 대한 효과들의 95% 신뢰구간을 계산해서 제시하였으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면 효과크기는 유의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효과크기 산출프로그램으로는 CMA를 사용하였으며, 19개 분석대상 연구물에 제시된 연구결과로부터 총 66개의 효과크기가 최종적으로 산출되었다.

(2) 효과크기의 동질성검정 및 독립성 가정 적용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의 사례수가 적어 무선평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적용할 경우 추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을 적용하여 집단별 평균효과크기를 추정하였다(김미정, 엄동문, 2012). 한편

1) Cohen(1992)은 '1.101=작음, 1.251=중간, 1.401=큼'으로 효과크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음.

조사대상 연구물들로부터 얻어진 효과크기들이 모집단의 효과크기를 대표하고 있는지, 즉 각각의 효과크기들에 대한 모집단 동질성(동분산성)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효과크기의 동질성 검정은 Q 통계치로 제시하였다(Hedges & Olkin, 1985). Q값의 유의성은 표집오차에 의한 기대치보다 효과크기의 변량이 커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미정, 염동문, 2012). 검정을 실시한 결과, 본 분석대상 연구물들의 전체표집분포에는 이질성이 존재하였다($Q=108.110, p<.001$). 따라서, 메타분석에서 얻어진 효과크기가 조절변인인 출판유형, 아동의 성별, 조사대상 지역, 발표년도, 표본수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효과크기의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재실시하여 조절변인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효과크기의 산출 기준에 적합한 통계자료를 보유한 19개의 연구물에서 산출한 총 66개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석대상 연구물들의 특성

본 논문에서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모두 포함하여 검색과 분류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모두 19편으로 연구물의 특성과 분석변수의 특성은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표본수는 최소 101개에서 최고 14,695개이었다.

표 1
Accepted Studies for the Emotional Abuse

No	저자	출판 유형	발표 년도	N	관련변수	이동 성별	거주 지역
1	이복희	학술논문	2007	724	모취업, 모학력, 부학력	남	광역시
2	백경숙	학술논문	2011	500	양육태도	-	기타
3	오승환	학술논문	2001	415	가정폭력, 경제수준, 모연령, 모음주, 모취업, 부연령, 부음주	남	광역시
4	김혜영 외	학술논문	2003	324	가정폭력, 양육태도	남	광역시
5	하은경 외	학술논문	2002	544	경제수준, 모연령, 모취업, 모학력, 부연령, 부학력, 양육태도,	남	광역시
6	장화정 외	학술논문	2000	14,695	가정폭력, 모음주, 부음주	-	
7	오승환	학술논문	2003	624	가정폭력, 경제수준, 모음주, 모취업, 부음주, 스트레스	남	
8	이현기	학술논문	2005	6,000	모연령, 모음주, 모취업, 부연령, 부음주	남	기타
9	김미희	학위논문	2000	203	경제수준, 모연령, 모취업, 모학력, 스트레스	여	기타
10	서보열	학위논문	2003	252	모연령, 모학력, 부연령, 부학력, 양육태도	남	기타
11	김인순	학위논문	2002	386	양육태도	남	광역시
12	도현석	학위논문	2011	312	경제수준	남	기타
13	김순희	학위논문	2002	245	모연령, 스트레스	-	광역시
14	구정미	학위논문	2011	192	스트레스	-	
15	김현정	학위논문	2002	178	부연령, 부음주, 부학력	여	광역시
16	김혜경	학위논문	2010	202	스트레스	-	기타
17	유영선	학위논문	2012	1,222	가정폭력, 경제수준, 모연령, 모음주, 모취업, 모학력	남	
18	이선화	학위논문	2006	182	모연령, 모학력, 부연령, 부학력	여	
19	정은자	학위논문	2008	101	경제수준, 모학력, 스트레스	남	기타

연구대상인 정서학대와 관련된 부모요인은 선행연구 분석에서 나타난 모학력, 모취업, 모음주, 모연령, 부연령, 부음주, 부학력, 가정폭력, 스트레스, 양육태도, 경제수준이 모두 나타났다. 두 연구변인에 대한 결합효과(joint effect)인 조절변수로서 고려된

아동의 성별은 남자의 비율이 더 높은 논문이 11편, 여자의 비율이 높은 논문이 3편이었다. 출판유형은 학술논문이 8편, 학위논문이 11편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 지역 광역시 이상이 7편, 기타지역이 7편인 것으로 분류되었다.

2. 정서학대와 부모요인의 평균효과크기

자료의 독립성 가정 위반은 메타분석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독립성 가정위반은 하나의 연구에서 여러 개의 효과크기가 산출되면 각 효과크기는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 가정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은 자료가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하였으며, 대안으로 가장 샘플수가 큰 효과크기를 선정하여 분석하거나 효과크기 평균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정보의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Cooper(2010)가 제시한 분석단위의 이동을 적용하였다. 정서학대와 부모요인에 대한 전체효과크기는 연구물 단위로 분석하고, 개별 하위항목은 각 연구물에서 도출된 개별효과크기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연구물들로부터 정서학대와 부모요인(모학력, 모취업, 모음주, 모연령, 부학력, 부음주, 부연령, 양육태도, 가정폭력, 스트레스, 경제수준)과의 효과크기(Fisher's Zr)에 각 연구별 역분산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된 가중 평균 효과크기(weighted mean ES)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에 사용된 연구물 각각에 대한 정서학대와 부모요인의 효과크기에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으면 효과크기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표 2와 같이 정서학대와 부모요인의 전체 효과크기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인다. 부모요인의 하위변인인 모음주, 모연령, 부음주, 가정폭력, 부모의 스트레스는 정서학대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지만, 모학력, 모취업, 부학력, 부연령, 양육태도, 경제수준은 정서학대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학대와와의 관계에서 부모요인의 9개 하위변인 중에서 4개의 평균효과크기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5개의 평균효과크기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에 따라서 효과크기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평균효과크기를 고려하면 정서학대와 부모요인의 관계는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표 2

Effect Size on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Abuse and Parental Factor

연구변인	평균효과크기 (Zr)	95% CI	Homogeneity Q	Higgins I^2	
정 서 학 대	모학력 (k=7)	0.007	-0.030 to 0.043	11,162	46,25%
	모취업 (k=7)	0.002	-0.026 to 0.029	2,900	0,0%
	모음주 (k=5)	0.016	0.005 to 0.027**	5,010	20,17%
	모연령 (k=8)	0.034	0.008 to 0.061*	4,540	0,0%
	부학력 (k=5)	-0.001	-0.038 to 0.037	11,348*	64,75%
	부음주 (k=5)	0.026	0.016 to 0.037***	6,082	34,24%
	부연령 (k=6)	0.019	-0.010 to 0.047	23,116***	78,37%
	양육태도 (k=5)	0.037	-0.010 to 0.084	131,788***	96,97%
	가정폭력 (k=5)	0.055	0.044 to 0.066***	10,474*	61,84%
	스트레스 (k=6)	0.181	0.136 to 0.225***	29,654***	83,14%
	경제수준 (k=7)	0.011	-0.024 to 0.046	4,347	0,0%
	총계 (k=19)	0.033	0.023 to 0.043***	108,110***	83,35%

k=분석된 연구의 수, Q = 효과크기의 이질성, CI=신뢰구간,
 I^2 = 효과크기의 이질성으로 작음(25%), 중간(50%), 큼(75%)을 나타냄.

효과크기의 동질성에 대한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한 검증에서 부모요인의 전체효과크기(Q=108,110, $p < .001$), 부학력(Q=11,348, $p < .05$), 부연령(Q=23,116, $p < .001$), 양육태도(Q=131,788, $p < .001$), 가정폭력(Q=10,474, $p < .05$), 스트레스(Q=29,654, $p < .001$) 하위변인에서 모두 이질적으로 나타났으며, 효과크기의 이질성 정도는 모든 변인에서 중간크기 이상을 나타내었다²⁾. 즉, 연구결과에 대한 각각의 상관관계가 일정(consistent)하지 않아 각 연구결과(outcome) 내에서 변량이 존재하고 있다. 효과크기의 변량을 설명하려면 연구특성변인(잠재적 조절변인)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2) Higgins I^2 는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25%는 작은 이질성, 50%는 중간 이질성, 75%는 큰 이질성을 의미한다.

3. 정서학대와 부모요인의 효과크기 조절요인

1) 범주형 변인별 분석결과

정서학대와 부모요인에 대한 조절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아동의 성별, 연구물의 출판여부, 조사대상 지역을 조사하였다. 각 잠재적 조절변인은 가중된 평균값으로 두 범주로 나누어 코딩하였으며, 각 조절변인에 따른 평균효과크기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동질하게 나타난 변인은 조절변인 검증에서 제시하지 않았으며, 조절변인에 의해서 1개 이상의 연구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표 3에 제시하지 않았다.

표 3

Mean Effect Size by Categorical Variables

연구변인	k	Zr	95% CI	Q			I ²	
					within	between		
부 학 력	성별(남)	3	0.004	-0.038 to 0.045	4.663	11.137*	0.212	57.11%
	성별(여)	2	-0.019	-0.103 to 0.066	6.474*			84.55%
	출판여부(학위)	3	-0.042	-0.112 to 0.027	7.425*	9.409*	1.940	73.06%
	출판여부(학술)	2	0.016	-0.028 to 0.061	1.984			49.60%
부 연 령	출판여부(학위)	2	0.023	-0.042 to 0.088	0.256	22.997***	0.015	0.0%
	출판여부(학술)	3	0.019	-0.014 to 0.051	22.742***			91.21%
	지역(광역시)	3	0.080	0.036 to 0.125***	9.769**	10.644*	12.369***	79.53%
	지역(기타)	2	-0.026	-0.064 to 0.013	0.874			0.0%
양 육 태 도	출판여부(학위)	2	-0.449	-0.549 to -0.348***	0.597	0.774	130.99***	0.0%
	출판여부(학술)	2	0.254	0.188 to 0.321***	0.177			0.0%
전 체	성별(남)	11	0.019	-0.006 to 0.044	55.149***	57.351***	0.039	81.87%
	성별(여)	3	0.027	-0.044 to 0.098	2.202			9.17%
	출판여부(학위)	11	0.064	0.025 to 0.102**	87.083***	105.338***	2.772	88.52%
	출판여부(학술)	8	0.031	0.020 to 0.041***	18.254*			61.65%
	지역(광역시)	7	0.041	0.006 to 0.075*	49.170***	73.423***	0.086	87.80%
	지역(기타)	7	0.034	0.003 to 0.065*	24.253***			75.26%

정서학대와 부모요인에 관한 조사아동의 성별에 따른 효과크기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정서학대와 부모요인에서 출판여부에 따른 효과크기는 학술지($Zr=0.031$)보다 학위논문($Zr=0.064$)이 정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 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정서학대와 부모요인에서 조사대상 지역에 따른 효과크기는 광역시($Zr=0.041$)가 기타($Zr=0.034$)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이 두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서학대와 부모요인 하위변인인 양육태도에서 출판여부에 따른 효과크기는 학술지($Zr=0.254$)보다 학위논문($Zr=-0.449$)이 부적으로 크게 나타나 출판여부에 따라 양육태도의 효과가 반대로 제시되었으며, 이 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정서학대와 부모요인 하위변인인 부학력과 부연령에서 아동성별과 출판여부, 출판여부와 조사대상 지역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통계적 의미는 없었으며, 효과크기의 수가 적어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2) 연속형 변인의 메타회귀분석 결과

연구특징별 변수가 범주형 변인이면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하고, 연속형 변인은 그 연속변인의 증감에 따른 효과크기의 증감을 알아보기 위한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정서학대와 부모요인에 대한 메타회귀분석은 효과크기의 수를 고려하여 부모요인 전체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정서학대와 부모요인에 대해서 발표년도가 높아질수록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학대와 부모요인에 대한 표본수의 크기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Results of Meta-Regression Analysis

연속변수명	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	p
표본수	절편	0.04861	0.01217	3.995	0.000
	기울기	-0.00000	0.00000	-1.404	0.160
발표년도	절편	-8.401442	3.94535	-2.031	0.042
	기울기	0.00402	0.00197	2.040	0.041

4. 출판편의(publication bias) 검증

출판편의는 학술지 편집자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positive) 연구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출판될 가능성이 높게 되어 메타분석을 위한 문헌탐색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연구들이 더 많이 파악되어 결과적으로 메타분석 결과가 왜곡되는 편의(bias)를 의미한다(Simes, 1987). 본 연구에서 조사 수집된 논문의 편의 정도를 확인하고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출판편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Egger의 선형회귀검증을 실시한 결과, 절편(intercept이 0.4020이고, 양측 검증의 p값이 0.5907이므로 출판편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gg와 Mazumdar의 순위상관검증에서 Kendall의 tau b값이 0.0585이며 양측검증의 p값이 0.7265이므로 출판편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Rosenthal의 안전계수(Fail-safe N)가 99로 나타났다. 이것은 99개의 유의하지 않은 추가적인 연구물이 포함되어야 종합적으로 분석된 연구결과가 양측검증의 p값이 0.05를 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서학대와 부모요인에 대한 출판편의 검증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출판편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정서 학대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새로운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아동에게 정서와 심리적 상태가 불안하게 되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서 학대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후유증을 모르는 채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하다.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학대를 유발하는 부모요인의 영향을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통합 적용하고자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선정을 위해 정서학대 발생요인에 대해 각 변수별 주제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주제어를 중심으로 총 19편의 논문을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각각의 연구에서 도출된 효과크기는 각 연구의 역분산 값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후, 가중 평균 효과크기로 계산되었다. 연구대상인 정서학대와

관련된 부모요인은 선행연구 분석에서 나타난 모학력, 모취업, 모음주, 모연령, 부연령, 부음주, 부학력, 가정폭력, 스트레스, 양육태도, 경제수준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정서학대와 부모요인의 전체 효과크기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요인의 하위변인 중 모음주, 모연령, 부음주, 가정폭력, 부모의 스트레스가 정서학대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우선 부모의 음주는 정서학대와 관련성이 있는 결과로 도출되었는데 부모가 음주를 하는 경우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은 선행연구와도 일치된 결과이다(이원표, 2001; Fantuzzo et al., 1997). 음주와 학대와의 관련성은 첫째 음주는 좌절에 대한 인내력을 떨어뜨리고 분노하는 행동을 증가시키고, 둘째 공격적인 충동성 억제가 어렵고, 셋째 부모로서의 판단능력을 저해하고, 넷째 부모가 아동의 정서적 물리적 필요에 반응하기 보다 음주하는데 초점을 두게 되어(Ammenman et al., 1999)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로 연결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음주는 부모의 반사회성과 결부되어 아동학대로 연결되어진다고 보고한 결과와도(Brown et al., 1998)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다음으로 모연령이 정서학대와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젊은 어머니의 연령이 아동학대 발생에는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에게 정서학대를 가하는 비율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고성혜, 1992; 조옥자, 현온강, 2005)는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양육의 경험부족과 불안정한 생활상태에 대한 스트레스가 학대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모의 연령에 따라 정서학대 발생정도는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한다(김미희, 2000; 이선화, 2006).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통계값의 평균효과크기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으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모의 연령을 고려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폭력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매우 유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부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정서학대를 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김혜영, 장화정, 2002). 이는 아동이 부모의 분노표출의 대상이 되기 쉽고, 특히 배우자가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함으로써 부부갈등을 야기할 때 그들은 자식으로부터 사랑과 보상을 얻으려 함으로써 정서학대가 유발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부모 스트레스는 정서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김순희, 2002)는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을 높게 지각하며 아동의 행동을 자주 통제하고 아동의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아 아동에게 정서학대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정서학대에 대한 개입 및 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정서학대와 부모요인과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상반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정서학대 관련 부모인 즉 모학력, 모취업, 모음주, 모연령, 부연령, 부음주, 부학력, 가정폭력, 스트레스, 양육태도, 경제수준 중에서 모음주, 모연령, 부음주, 가정폭력, 부모의 스트레스가 우선적으로 상관이 높은 변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 실무자는 부모의 음주, 모의 연령, 가정폭력여부,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은 가정에서 정서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대 받은 아동이 스스로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폭로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정서학대로 인한 손상이 외형화 되지 않아 쉽게 발견하지 못하여 조기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도출한 변인을 고려한 개입은 정서학대에 대한 보다 조기개입이 가능해진다. 그로인해 정서학대로 인한 아동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둘째 정서학대는 부모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모의 스트레스는 빈곤가정의 아동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과 자살, 아동의 과잉행동 등(정은희, 이은아, 천성문, 2010)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정서학대 가해 부모는 스트레스가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이나 음주 혹은 음주와 폭력 양자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대 가해 부모에 대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설계된 Project · 12ways(Healey, Smith & O'Sullivan, 1998)와 같은 프로그램을 우리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Project · 12ways은 변화의 책임과 가능성을 보다 많이 가진 부모가 주도적으로 변화해야 함을 일관되게 격려하면서 개인, 상호작용, 자원 동원 등 광범위한 개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에서도 학대부모가 양육스트레스와 기타 어려움으로 학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가지는 스트레스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

트레스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정서학대가 발생한 가족개입에서는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개입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가족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탄력성 관점을 제시하는데(김은한, 유서구, 2012), 가족의 긍정적 특성과 자원이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내 자원에 대해 박미석과 김지은(2013)은 결혼만족도와 부모자녀 상호간의 자원인 의사소통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부모의 스트레스 감소시켜 주는 방안을 현장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부부간의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 제공 및 가족 내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서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개입할 때 특히 부부갈등을 고려하여 부부 상담과 가족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대상관계의 하위요인 중 '소외'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안정되고 만족스럽게 친밀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머니는 자녀의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어머니 자신의 우울, 양육에 대한 유능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기인한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것이다.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관계 문제가 상관이 있으며(서주현, 김진경, 2011),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건강과 사회적 고립과도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전미순, 이영애, 2009; Lamb, 1999)들을 함께 고려해보면 정서학대가 의심스러운 가정의 경우 부모의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실천현장에서 가해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같은 집단 상담을 제공하거나 학대부모 프로그램 내에 부부관계가 강화될 수 있는 나들이 또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부모의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과 가정폭력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 정서학대 발생 고위험군이므로 반드시 가정 내 자녀에 대한 정서학대에 대한 개입도 고려되어야 할 수 있도록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안내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서학대의 예방적 차원에서 부모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부모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녀양육과 연관된 어려움이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지각이 양육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부모 자신의 내면적 자원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보이고(안라리, 김정아, 2005),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의 요구와 반응에 민감하지 못하고 통제적(Crnic & Greenberg,

1990)이 되므로 부모 스스로 자신의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송연숙과 김영주(2008)는 양육효능감 강화를 위해 양육지식이 제공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또는 상담을 통하여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양육지식과 양육기술을 훈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아동복지법내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도 없고 '상담 및 교육'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서학대는 외관상 잘 드러나지 않아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정서학대 가해 부모가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게 허용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아동학대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못한 사회적 인식이 한몫을 하고 있다. 정서학대로 인해 가지는 아동의 심각성 및 후유증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 내에 정서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규정과 처벌 규정에는 반드시 학대가해 부모에게 실시해야 하는 부모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아이들에게는 보호자에 의한 보호가 그들 유일한 생존보호막이며 생을 살아가게 하는데 기본적 지지자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강대선 (2001). **가정내의 아동학대 발생 요인 및 휴유증 연구: 광주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미영 (2004).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1), 71-102.
-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정, 염동문 (2012). 아동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409-430.
- 김미희 (200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세원 (2008). **아동학대 재발생의 영향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세원, 이봉주 (2005). 아동학대와 방임의 사회구조적 요인: 빈곤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9(3), 347-373.
- 김순희 (2002).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미 (2007). **어머니의 분노경향성과 아동학대 유발 가능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한, 유서구 (2012). 가족탄력성이 빈곤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35, 145-171.
- 김정미 (2009). **아동학대유형별 위험정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연 (2001). **아동보호전문상담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정 (2002). **가족관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영, 석말숙 (2003). 아동기 학대적 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개인특성 및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6, 71-97.
- 김혜영, 장화정 (2002). 아동학대 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부모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 아동권리연구**, 6(2), 269-286.
- 김혜인 (2007).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성인기 심리적부적응 간의 관계: 정서인식의 어려움, 정서표현 역제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충래 (2002).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3, 121-154.
- 박명숙 (2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 음주와 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2, 83-106.
- 박미석, 김지은 (2013). 저소득 가정의 부모자원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7(1), 179-198.
- 박양리, 현명호 (2012). 용서치료 프로그램이 성인아이의 부정적 정서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2), 275-297.
- 박정숙 (2009).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경운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행진 (2000). **가정 내의 아동학대와 제 변인과의 관계**.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경숙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와 결혼만족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2), 181-198.
- 보건복지부(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서보열 (2004).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주현, 김진경. (2011). 어머니의 출산 전, 후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2011(1), 171-172.
- 송연숙, 김영주 (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교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 신현주 (2010).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학대경험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정서인식과 부정적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라리, 김정아 (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또래 유능성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36(1), 329-350.
- 여진주 (2008). 아동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 경상북도 동부권 아동을

-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28(1), 3-26.
- 오승환 (2001).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부모 이혼, 별거 가족과 사망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7(1), 99-125.
- 오승환 (2003). 빈곤지역 거주 아동의 학대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아동권리연구**, 7(3), 451-473.
- 이복희 (2007). 부모의 아동학대와 아동의 적응변인 연구. **교육문화연구**, 13(1), 99-122.
- 이선화 (2006). **빈곤지역의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 가족과 양부모 가족간의 비교**.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웅 (2011). **정서적 학대경험, 부정적 자기개념, 수치심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원표 (2001). **아동학대상담사례연구집**. 서울: 서울특별시립 동부아동상담소.
- 이현기 (2005). 아동학대 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3, 77-108.
- 유영선 (2012). **모의 우울이 학령전기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화정, 강미경, 신소현 (2000). 가정 내 위기 요인과 아동학대의 관계. **아동과 권리**, 4(2), 125-138.
- 전미순, 이영애 (2009).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모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4), 97-116.
- 전영실 (2000). 피학대아동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6, 1-240.
- 전영실 (2003). 가족특성과 아동학대 피해의 관계. **피해자학연구**, 11(2), 53-77.
- 정은자 (2008).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학대에 미치는 영향: 성남시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희, 이은아, 천성문 (2010). 빈곤가정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부모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9(1), 63-85.
- 조옥자, 현은강 (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141-161.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지주예 (2002).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하은경, 박천만 (2002). 아동학대실태 및 관련요인: 대구광역시 일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8(4), 351- 361.
- 한인영, 김진숙, 유서구 (2007). 아동기 성학대 피해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4, 541-546.
- 형사정책연구원 (2000).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Brandon, E., Iwona, C., & Mark, Z. (2007). Childhood emotional, physical, and sexual abuse, and diagnoses of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in adult psychiatric outpatients. *Depression and Anxiety*, 24(4), 256-263.
- Brown, J., Cohen, P., Johnson, J. G., & Salzinger, S. (1998). A longitudinal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22(11), 1065-1078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 Cooper, H. (2010) *Research synthesis and meta-analysis: A step-by-step approach*. LosAngeles: Sage Publication.
- Crnicek, K. A., & Greenberg Mark,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Danziger, S. K., & Danziger, S. (1993). Child poverty and public policy: Toward a comprehensive antipoverty agenda. *Daedalus*, 122(1), 57-84. Also published in Japanese, entitled, Investing in America's children: Child poverty and social policy, in *Aging and Work*, 11(4), 17-31.
- Djeddah, C., Facchin, P., Ranzato, C., & Romer, C. (2000). Child abuse: Current problem and key public health challenges. *Social Science & Medicine*, 51, 905-915
- Fantuzzo, J., Boruch, R., Beriama, A., Atkins, M., & Marcus, S. (1997). Domestic violence and children: Prevalence and risk in five major US cit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 116-122.
- Hart, S. N., & Brassard, M. R. (1987). A major threat to children's mental health.

- Psychological maltreatment. *American Psychologist*, 42, 160-165.
- Harvey, J. & Delfabbro, P. H. (2004). Psychological resilience in disadvantaged youth: A critical overview. *Australian Psychologist*, 39(1), 3-13.
- Healey, K., Smith, C., & O'Sullivan, C. (1998).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 approaches and criminal justice strategie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Hedges, L. V., & Olkin, I. (1985). *Statistical methods for meta-analysis*. New York: Academic Press.
- Lamb, D. (1999). Parenting stress and anger: The Honk Kong experience.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4, 337-346.
- Miller, B., Fox, A. R., & Garcia-Beckwith, L. (1999). Intervening in severe physical abuse cases: Mental health, legal, and social services. *Child Abuse & Neglect*, 23(9), 905-914.
- Ammermen, R. T., Kolko, D. J., Kirisci, L., Blackson, T. C., & Dawes, M. A. (1998). Child abuse potential in parents with histories of substance use disorder. *Child Abuse & Neglect*, 23(12), 1225-1238.
- Rodriguez, C. M., & Richardson, M. J. (2007). Stress and anger as contextual factors and pre-existing cognitive schemas: Predicting parental child maltreatment risk. *Child Maltreatment*, 12(4), 325-337.
- Simes, R. J. (1987). Confronting publication bias: A cohort design for meta analysis. *Statistics in Medicine*, 6(1), 11-29.
- Tajima E. A. (2000). The relative importance of wife abuse as a risk factor for violence against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24(11), 1383-1398.
- Wolfe, D. A., & Wekerle, C. (1993). Treatment strategies for child physical abuse and neglect: A critical progress report.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 473-500.

ABSTRACT

A meta-analysis of parental attributes as they relate to emotional abuse in children

Kim, Mijung* · Lee, Keungeun** · Yeum, Dongmoon***

It has been reported that 25.3% of children (age: 0-18) in Korea have experienced some form of emotional abuse. Although this is clearly a very serious social problem, a system which can protect children against emotional abuse has not yet been fully established. As a consequence of such emotional abuse, a number of adverse effects may result, including learning problems, maladaptation to school life, juvenile delinquency, and suicide.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emotional abuse in children exerts a long-term negative effect on their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the underlying parental attributes that contribute or result in emotional abuse in children through the meta-analysis of previously released research papers. 19 research papers were included for meta-analysis, and the effect size, drawn from Fisher's transformed correlation, was calculated to weighted mean effect size. The size of emotional abus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arental factors. Parental factors, such as a mother's drinking habits, her age, a father's drinking habits, family violence, and parental stres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motional abuse in children.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esent study sets forth the underlying parental factors contributing to emotional abuse in children. Understanding these underlying parental factors is likely to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strategies designed to reduce emotional abuse in children in Korea.

Key Words : emotional abuse, parental factor, meta-analysis, effect-size

투고일 : 2013. 6. 10, 심사일 : 2013. 6. 26, 심사완료일 : 2013. 7. 15

* Gijang Social Service Cen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